

HEADLINE NEWS

영화와 토론이 있는 인권 영상제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오스틴공공도서관(Austin Public Library)은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권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을 갖는 영상제가 열린다. 이 영상제는 미국도서관협회와 전국비디오자료원이 함께 마련한 프로그램(The Human Rights Video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오스틴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인권영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내 50개 도서관 가운데 하나다.

오스틴공공도서관에서는 인권전문가, 영화제작자, 그리고 사서들이 선정한 1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다. 여성, 어린이, 난민 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상영되며, 영화감상이 끝난 후에는 토론이 벌어진다. 인권영상제는 국내외에서 인권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ci.austin.tx.us/library/news/nr20050218.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친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법 개정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 ② '에너지효율 주택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미국 조지아주)
- ③ 스마트성장 CD 무료 보급 (미국)

도시환경

- ④ 도시화지역 내부의 자연공간 보전 계획 추진 (오리곤주 포틀랜드)
- ⑤ 단독주택지 가정용 쓰레기의 호별(戶別) 수집 100% 달성 예정 (일본: 시나가와區)
- ⑥ 동물원에서 휴대전화 재활용 프로그램 실시 (덴버)

도시교통

- ⑦ 광고수입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 안에 TV 모니터 설치 (미국)
- ⑧ 도로공사가 잦은 계절을 맞아 도로공사 안내정보 적극 제공 (미시건주)
- ⑨ 자가용 통행비용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웹사이트 개설 (시애틀)

사회복지·문화

- ⑩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대담회' 후원 (오스틴)
- ⑪ 동물보호소에서 애완동물 등록 캠페인 적극 실시 (시애틀)

행정

- ⑫ 공사사업자의 과거 실적과 시공능력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입찰제도 도입 (동경)
- ⑬ 기술선도 도시(technopolis)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미국)

① 친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법 개정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의 매니 디아즈(Manny Diaz) 시장은 ‘마이애미 21’ 플랜을 통해 시의 도시개발 패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친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Form-Based Zoning Code’를 도입할 예정이다. Form-Based Zoning이란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고밀 압축개발과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시 스포를 개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의 기본 계획 원칙이다.

(Miami Herald, 2005. 4. 15, “Miami to scrap old code, design new city”)

② ‘에너지효율 주택’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미국: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는 ‘Georgia Dream Loans’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효율 주택(Energy-Efficient Home)’을 구입하는 저소득 가구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주택’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건축비용이 1~3%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사용비용 절약과 각종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효율 주택 구입시 패니매(Fannie Mae) 재단의 ‘Energy Efficient Mortgage’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 집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100% 이상 개선하면 주택 모기지(Mortgage)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05. 4. 17, “Green construction benefits Earth, wallet: Financial incentives offset initial expense”)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스마트성장 CD 무료 보급 (미국)

미국의 스마트성장 운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스마트성장 아메리카(Smart Growth America)’는 스마트성장에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모은 CD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CD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스마트성장에 대한 소개, 스포롤의 비용과 스마트성장의 혜택, 교통과 환경문제, 커뮤니티 재건, 공중보건, 토지와 환경보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D의 무료 보급은 미국 환경보전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웹사이트(www.smartgrowthamerica.org)에서 주문할 수 있다.

(www.planning.org/features/2005/cdrom.htm)

④ 도시화지역 내부의 자연공간 보전 계획 추진 (오리곤주: 포틀랜드)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 대도시권 계획기구인 ‘메트로 포틀랜드(Metro Portland)’는 도시화된 지역 내부에 남아 있는 자연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Nature in Neighborhood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자연환경 보전 프로그램들이 주로 도시성장 한계선 바깥의 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프로그램은 도시성장 한계선(Urban Growth Boundary) 내부의 기(既)개발지역에 남아 있는 자연공간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자연공간 보전에서 나아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의 생태복원과 친환경적인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Daily Journal of Commerce, 2005. 4. 19, “Portland’s regional government agency, Metro, to launch Nature in Neighborhoods initiative”)

5] 단독주택지 가정용 쓰레기의 호별(戶別) 수집 100% 달성 예정 (일본: 시나가와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일본 東京都 시나가와구(品川區)가 실시해 온 가정용 쓰레기의 호별(戶別) 수집이 2005년 7월에 100%를 달성할 예정이다. 區전역에서의 실시는 동경 23개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며, 유료화하지 않고도 배출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일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東京都로부터 청소사업을 넘겨받은 시나가와區는 2002년 10월 약 7,200세대로 시작, 2003년도에는 약 45,600세대, 2004년도에는 120,600세대로 호별 수집을 확대했으며, 현재 호별 수집비율은 전 세대의 70% 정도에 이른다. 환경청소사업부에 의하면, 호별 수집이 약 2.6배 증가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가연(可燃) 쓰레기량을 비교하면 약 4.4%, 3,000여 톤의 감소 성과가 있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3/20f39500.htm)

6] 동물원에서 휴대전화 재활용 프로그램 실시 (덴버)

미국 덴버市 동물원은 휴대전화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덴버 동물원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 업체로 보낸다. 이렇게 모은 중고 휴대폰을 수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저소득 주민에게 공급하거나, 긴급전화가 필요한 부녀자보호소와 노인단체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덴버 동물원의 동물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와 가전용품들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매립지 쓰레기 가운데 하나로, 매년 320만 톤 이상의 전자제품 쓰레기가 전국의 매립지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매립지에 버려진 전자제품의 환경유해물질은 토양과 배수로로 스며들고, 소각으로 인해 입자들이 대기 중에 섞이게 된다.

(www.denvergov.org/newsarticle.asp?id=8251)

7 광고수입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 안에 TV모니터 설치 (미국)

미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차량 안에 TV모니터를 설치하여 광고수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애틀랜타에서는 현재 지하철의 모든 차량에 TV모니터를 설치하는 중인데, 관계당국은 TV모니터를 통한 광고수입으로 향후 10년간 2,000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2대의 지하철과 25대의 버스에 TV모니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하철 터널 내부 광고 등과 함께 향후 2~3년 이내에 수백만 달러의 광고수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덴버에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애틀랜타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2월에 일부 버스와 경전철 차량에 19인치 스크린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승인, 관련업체와 계약 협상 중에 있다. 보스턴의 경우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년 이내에 지하철 3개 노선에 TV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보스턴 관계자는 광고수입으로 연간 350만 달러의 수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www.usatoday.com/news/nation/2005-04-07-subways-tv_x.htm)

8 도로공사가 잦은 계절을 맞아 도로공사 안내정보 적극 제공 (미시건주)

미국의 미시건주 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잦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운전자에게 도로공사 관련 안내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시작했다. 'Paving the Way'라고 불리는 이 홍보 프로그램은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운전자의 불편함을 덜고,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교통부는 매년 도로공사 정보를 갱신한 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주교통부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도로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ww.michigan.gov/mdot/0,1607,7-151-9620_11057-113982--M_2005_3,00.html)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9] 자가용 통행비용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웹사이트 개설 (시애틀)

미국 시애틀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etro는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통행비용을 계산해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통근자의 통행거리, 출근일수, 주차비용, 연료비, 그리고 해당 차량의 연비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자가용 통행비용을 계산해 주고, 통행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통행비용 절감분을 알려준다. 특히, 보다 현실적인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최신 교통정보와 매일 갱신되는 지역마다 다른 연료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의 개설은 자가용 운전자에게 자가용 통행비용이 적지 않음을 상기시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seattletimes.nwsourc.com/html/localnews/2002238797_commute12m.html)

8]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대담회’ 후원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의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AMCPD: Austin Mayor's Committe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대담회(Community Conversation 2005)’를 개최하였다. 이 대담회는 고용, 주택, 교통, 건강·복지서비스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기관들의 서비스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대담회 2005’는 2005년 3월 30일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회의에 참석하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나 보호자들을 위해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또한, 스페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스페인어와 수화 통역자들이 도움을 주었다. 오스틴시는, 장애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대담회를 정책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ci.austin.tx.us/news/2005/disability_townhall.htm)

동물보호소에서 애완동물 등록 캠페인 적극 실시 (시애틀)

미국 시애틀 동물보호소는 주인을 쉽게 알 수 있는 애완동물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원과 지역사회에서 순찰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애틀시의 애완동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동물보호소의 캠페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애완동물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주인에게 54달러의 벌금 경고장을 발부한다. 또, 애완동물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고장이 발부된다. 애완동물 등록비는, 개의 경우 1년에 40달러(중성화수술을 시킨 경우에는 20달러), 2년에 62달러(중성화수술을 시킨 경우 30달러)이며, 고양이는 1년에 25달러(중성화수술을 시킨 경우 15달러), 2년에 40달러(중성화수술을 시킨 경우 22달러)이다.

동물보호소 소장인 Don Jordan은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며, 애완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380만 마리의 길 잃은 개들 중에서 17%, 미국 전체 230만 마리의 길 잃은 고양이들 중에서 2% 정도만이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등록된 애완동물이 동물보호소에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동물관리소 직원들이 거리에서 애완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수월하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등록을 한 애완동물은 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시민안전 보호, 동물학대 예방, 저렴한 중성화수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애완동물 등록은 시애틀 동물보호소나 인근 커뮤니티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등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seattleanimalshelter.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4953&Dept=5)

공사사업자의 과거 실적과 시공능력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입찰제도 도입 (동경)

일본 東京都는 중소기업의 공사와 추첨에 의한 낙찰에서 불량시공이 많았던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사업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업자의 과거 공사실적과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의 업자에게 낙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형 종합평가방식’으로 명명된 이 입찰제도는 업자의 입찰평가와 시공능력을 각각 점수화하여 합계가 가장 높은 업자가 낙찰된다. 都가 연간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공사는 약 26,000건이며, 먼저 2005년에는 전기설비공사 등 발주 건수가 많은 공사에 시행하고, 배점방식을 검증하여 2006년도 이후에는 都가 발주하는 공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411c3b1104411.html)

기술선도 도시(technopolis)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미국)

미국의 한 과학 잡지인 ‘Popular Science’는 최근 미국의 기술선도 도시(technopolis)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6개 분야(일반 시민의 정보기술 활용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정도, 인구 1인당 첨단분야 종사자 수, 첨단교육 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활용도, 대체/첨단 에너지 사용정도, 의료 및 응급시스템의 수준)에 걸쳐 인구센서스 자료, 과학재단 보유 자료 등을 이용해 인구 25,000명 이상 도시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 평가결과 종합 순위에서 미네소타州的 미네아폴리스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애틀랜타, 워싱턴 D.C., 보스턴/캠브리지, 샌디에이고 등이 상위 5개 도시로 선정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애틀이 일반 시민의 정보기술 활용도 분야에서, 샌디에이고가 의료 및 응급시스템 분야에서, 산호세가 첨단직업 분야에서, 보스턴이 첨단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었다.

(www.popsci.com/popsci/generaltech/article/0,20967,1027536,00.html)